

[투자제안서] CBVR: 스스로 진화하는 금융 기술 플랫폼

(Institutional Capital Efficiency Solution)

Executive Summary

금융 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영원한 알파(Alpha)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시장 국면이 바뀌면 성능이 저하(Decay)되며,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퀀트 인력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CBVR(Channel-Vector Based Volatility Rebalancing)****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CBVR은 단순한 투자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재귀적 확장성(Recursive Scalability)"****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스스로 논리를 진화시키는 금융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자본 효율성'과 '변동성 붕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CBVR 2.3 선물 복제 프레임워크]****를 플래그십 솔루션으로 제안합니다.

본 제안서는 30억 원의 Series A 투자를 통해,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넘어 기관 자본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제1장. 비전: 멈추지 않는 엔진, 진화하는 플랫폼

1.1. 시장의 문제: "유지보수의 덩"과 "블랙박스"

- Alpha Decay (알파의 붕괴): 기존의 퀀트 전략들은 특정 시장 국면에 과적합(Overfitting)되어 있어, 시장 성격이 변하면 수익률이 급락합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 Black Box (설명 불가능성): "AI 기반"을 표방하는 수많은 솔루션들은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거액을 맡길 수 없습니다.
- Inefficiency (자본 비효율): ETF 기반 투자는 구조적인 '변동성 붕괴(Volatility Decay)'와 낮은 자본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2. CBVR의 해답: Self-Evolving Platform

CBVR은 이러한 문제를 ****'재귀적 구조'****로 해결합니다.

- 스스로 진화하는 구조: 개별 자산 → 포트폴리오 → 메타 전략에 이르는 전 계층에 동일한 로직이 반복 적용되어, 시장 국면이 바뀌면 시스템이 스스로 비중을 조절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 Transparent Logic (투명한 철학): 3중 필터(레벨, 스피드, 트렌드)라는 명확한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수익과 손실의 원인을 100% 설명 가능합니다.

제2장. 핵심 기술: 진화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

2.1. 3중 필터 시스템: 정교함의 증거

우리의 플랫폼은 막연한 예측이 아닌, 세 가지 정교한 필터를 통해 시장을 진단합니다.

1. 레벨 필터 (Level Filter): 가격의 위치를 파악하여 고평가/저평가 국면을 정의합니다.
2. 스피드 필터 (Speed Filter): 변동성의 속도를 측정하여,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비용을 통제합니다.
3. 트렌드 필터 (Trend Filter): 시장의 방향성을 읽고, 추세가 붕괴될 경우 스스로를 멈추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2.2. 재귀적 확장성 (Recursive Scalability): 기술적 해자(Moat)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CBVR만의 기술적 해자입니다. 전략이 전략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하위 자산의 성과가 무너지면 상위 포트폴리오가 이를 감지하여 비중을 축소합니다. 이는 별도의 인력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2.3. 압도적 성과 검증 (Proof of Concept)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 CAGR 42%
- MDD -18%
- Sharpe Ratio 2.3
- 지난 15년 백테스트 기준, 이 수치는 기술이 실제로 작동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최신 분석과 실시간 포지션은 24h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https://wejump3.tistory.com/category/CBVR> 전략성과

제3장. 플래그십 솔루션: 기관을 위한 "CBVR 2.3 선물 복제 프레임워크"

우리는 기관 투자자에게 단순한 '매매 신호'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 효율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1. 문제 해결: ETF의 한계를 넘어서

기존 레버리지 ETF 투자는 횡보장에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붕괴(Volatility Decay)'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이는 수용하기 힘든 구조적 손실입니다.

3.2. CBVR 2.3 프레임워크: The Flagship Solution

우리는 KOSPI 200 선물을 활용한 **[Target Beta 복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1. 변동성 붕괴 원천 제거: 선물을 사용하여 지수 자체를 추종함으로써,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손실 비용을 '0'으로 만듭니다.
2. 극강의 자본 효율성 (Capital Efficiency):
 - Target Beta(예: 1.5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은 자본의 약 30~45%에 불과합니다.
 - Bucket 3 (유휴 자본의 재투자): 남은 55~70%의 현금을 놀리지 않고, 안전한 실물 자산 (채권, 배당주 등)에 재투자하여 '이중 복리' 효과를 창출합니다.

3. 목표 MDD 통제: 기관이 원하는 리스크 허용 범위(예: MDD 25%)에 맞춰 레버리지 비율 (Lg)을 정교하게 커스터마이징합니다.

Value Proposition:
"CBVR 2.3은 기관의 자본 운용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대체 불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제4장. 시장 전략 (GTM): 선택과 집중

4.1. Primary Target: 기관 투자자 (B2B First)

시리즈 A 단계에서의 최우선 목표는 기술적 가치를 즉시 알아보고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시장입니다.

- 타겟: 자산운용사(상품 개발), 증권사(랩어카운트), 패밀리오피스, 연기금.
- 제공 모델: CBVR 2.3 선물 복제 프레임워크 라이선싱, API 연동, 화이트라벨링.
- 전략: "Flagship Solution"을 통한 Top-Down 접근. 기술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운용 파트너로 포지셔닝합니다.

4.2. Secondary Target: 개인 투자자 (B2C as Foundation)

B2C 시장은 수익화의 즉각적인 도구보다는, CBVR 브랜드의 팬덤(Fandom)과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 역할: "설명 가능한 투자" 콘텐츠 제공, 커뮤니티 형성.
- 전략: 기관 시장에서의 성공(Authority)을 바탕으로 개인 시장으로 낙수 효과(Trickle-down)를 유도합니다.

제5장. 투자 요청 및 로드맵

5.1. 투자 개요

- 모집 금액: 30억 원 (Series A)
- 기업 가치: (협업 가능 / 기술적 해자와 플랫폼 확장성 기반 산정)

5.2. 자금 사용 계획 (선택과 집중)

우리는 확보된 자금을 B2B 파이프라인 구축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항목	금액 (비중)	세부 계획
B2B 파이프라인 및 영업	12억 (40%)	기관 전담 세일즈 팀 구축,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기술 백서 및 PoC 진행
R&D 및 기술 고도화	9억 (30%)	CBVR 2.3 프레임워크 고도화, API 보안 강화 (ISMS 준비), 핵심 쿼트 영입

플랫폼 개발 및 운영	6억 (20%)	B2B/B2C 통합 대시보드 개발, 서버 인프라 확충
B2C 마케팅 및 커뮤니티	3억 (10%)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커뮤니티 운영

5.3. 성장 마일스톤

- Y1 (기반 구축): CBVR 2.3 프레임워크 상용화 완료, 기관 파트너 2~3곳 시범 계약 (PoC).
- Y2 (시장 침투): 운용사/증권사 정식 라이선스 계약 10건+, AUM 연동 1,000억 원 목표.
- Y3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및 B2C 유료 모델 본격화.

Epilogue: 투자의 미래를 다시 쓰다

CBVR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예측이 아닌 대응', '**비용이 아닌 효율'**을 추구하는 금융 공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가장 정교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First Solution이 될 것입니다. 30억 원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닌, 금융 시장의 비효율을 혁신하는 거대한 여정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파트너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참고 : 문서저장소 (<https://crowmag2.github.io/wejump/>)